

II 이주의 시대와 선교환경의 변화

D. 요약과 결론

by 박수민 선교사

이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주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주에 관한 연구는 이주의 시작 지점에 관한 연구와 도착 지점에 관한 연구로 영역이 나뉘어 있는데, 갈수록 두 영역이 통합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주의 연구는 학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지리학, 심리학, 법학, 문화 인류학 등이 통합적으로 동원된다. 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여러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181) 위의 글, 94-97.

182)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10-11.

183) Ross, 『에큐메니컬 선교학-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 425-427.

184) Todd M. Johnson, Kenneth R. Ross, *Atlas of Global Christianity 1910-2010*,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49.

초국가주의 이론에 중점을 두면서, 공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연구의 근거로 삼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하는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공간에 주목한다. 초국가주의 이론의 공간개념은 고정된 지역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 또한 절대적이고 계층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위상적인 공간이다. 이 디아스포라 공간은 종교적이면서 선교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주는 경계지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경계지대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발전과 성장의 토대였다. 이주는 경계지대뿐 아니라 주변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이주를 하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갖게 되는 공간적, 사회적, 정신적 위치에 해당한다. 재미 신학자 이정용의 연구에 의하면, 주변성은 디아스포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는 중심부와 주변성을 모두 포용하는 새로운 주변성이다. 이 새로운 주변성은 중심부와 주변부 모두를 화해시킬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공간은 창조적이면서 포용적인 공간이다.

이주는 창세기 에덴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래된 역사가 있다. 성경에는 이주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주민들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졌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주의 규모는 더 커지고 속도는 더 가속화되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 많아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이주는 세계화와 서로를 견인하며 발전했다. 2020년 현재 이주자는 2억8,100만 명에 이른다. 이주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현상이다. 최근의 이주는 세계화, 가속화, 차별화, 여성화, 정치화의 특징을 보인다.

이주는 기독교와 역사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주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했다. 이주 최근 기독교의 세계 기독교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반구 지역의 기독교 성장과 발전은 기독교가 서구만의 종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주는 선교지형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주의 보편화로 다양한 미전도 종족이 자기 집 문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주는 디아스포라의 선교 역량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선교자원을 공급한다.

기독교는 역사적 변화와 도전에 반응하면서 성장해 왔다.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일어난 대규모 이주의 물결에 기독교도 적절한 반응으로 응답해 왔다. 이주에 대한 복음주의의 반응은 주로 로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디아스포라 선교신학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 일에 이바지한 선교신학자, 현장 사역자들은 많은 경우 디아스포라 출신들이었다. 제3차 로잔대회가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을 때,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는 대회 전체에서 환영받는 주제였다.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 로잔 중심의 디아스포라 선교운동은 세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DN)로 개편되어 이전과는 다른 동적 선교(Kinetic Mission)에 미래의 지도자,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에큐메니컬 진영도 이주의 현상에 주목하며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주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통, 분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의한 도구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는 북반구 지역의 교회에 새로운 선교와 부흥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는 북반구는 주로 남반구 사람들의 이주를 받아들이는데, 이주해 오는 남반구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북반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반구에서는 난민선교, 유학생 선교 등 이주를 매개로 등장하는 새로운 선교유형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주에 대한 남반구 기독교의 반응은 매우 두드러진다. 남반구 기독교인 중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북반구 이주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남반구 기독교가 세계화 시대에 세계기독교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고, 기독교 인구 숫자로도 남반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남반구 출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과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선교 지향성과 공헌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활발하며, 갈수록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이주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주로 말미암아 기독교 선교환경에 변화가 생겨났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출현은 새로운 선교공간을 만들어냈으며, 이 공간은 경계지대와 주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교공간이다. 기독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선교는 이주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향한 선교를 진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주의 시대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선교공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그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중국선교의 위기는 새로운 선교공간에 대한 탐색을 촉진하고 있다.